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0호 [루게 제23252호] 주체99 (2010)년 10월 27일 (수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 당중앙위원회 비서들과 당중앙군사위원회 성원들을 인솔하고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련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비서들과 당중앙군사위원회 성원들을 인솔하고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에 즈음하여 10월 26일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의 위대한 수령 모택동동지의 아들 모안영동지의 묘와 중국인민지원군 련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리영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김영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홍석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위병대가 정렬하여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우리나라 애국가가 주악된 다음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동행한 당과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모안영동지묘와 지원군 련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시시고 중국인민지원군 련사들을 추모하여 목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모안영동지의 묘와 중국인민지원군 련사묘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이 세운 위훈과 공적에 대하여 깊은 감회속에 가슴뜨겁게 추억하시면서 지원군 련사들이 발휘한 고결한 희생정신과 전투적우의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길이 남아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는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이 흘린 피가 스며여있고 그들의 고귀한 위훈과 넋이 깃들어있다고 하시면서 공동의 위업을 위해 생명을 바친 지원군 련사들의 묘를 잘 관리하여 그들의 빛나는 업적이 영원히 전해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김정각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영일동지, 김양건동지, 박도춘동지, 최봉해동지, 태종수동지, 김평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인 문경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주규창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우동측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

회 위원들인 김명국동지, 김경옥동지, 김원홍동지, 정명도동지, 리병철동지, 김영철동지, 윤정린동지가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 련사묘에는 조선인민군 록해공군 및 로동적위군명에

깃들어있다고 하시면서 공동의 위업을 위해 생명을 바친 지원군 련사들의 묘를 잘 관리하여 그들의 빛나는 업적이 영원히 전해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 위 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 당중앙위원회 비서들과 당중앙군사위원회 성원들을 인솔하고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련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시였다



# 위 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 당중앙위원회 비서들과 당중앙군사위원회 성원들을 인솔하고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련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시였다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 당중앙위원회 비서들과 당중앙군사위원회 성원들을 인솔하고 회창군에 있는 전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를 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비서들과 당중앙군사위원회 성원들을 인솔하고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에 즈음하여 10월 26일 회창군에 있는 전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를 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리영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김영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홍석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김정각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영일동지, 김양건동지, 박도춘동지, 최봉해동지, 태종수동지, 김평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장 책임비서인 문경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주규창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우동측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인 김명국동지, 김경옥동지, 김원홍동지, 정명도동지, 리병철동지, 김영철동지, 윤정린동지가 동행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회창군당위원회 책임비서 박영길동지, 회창군인민위원회 위원장 손석근동지를 비롯한 군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

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가 위치하고있던 회창읍의 합지골에는 작전지휘실, 지하갱도, 군인회관을 비롯한 지원군장병들이 리용하던 건물들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1년 10월 19일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이곳을 찾으시어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고 지원군사령부와의 긴밀한 협동으로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화의 흔적이 력력히 남아있는 사령부자리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반미성전을 벌리던 잊을수 없는 력사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을 물리치는 힘겨운 싸움을 벌리고있던 1950년 10월 25일 중국인민의

위대한 수령 모택동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중국당과 정부는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밑에 중국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조직된 중국인민지원군을 조선전선에 파견하여 우리의 정의 투쟁을 피로써 도와주었다고 하시면서 중국당과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이 갖 창건된 직후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인민에게 물심량면으로 사심없는 지원을 준것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의 산모범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아 부대의 전투승리를 보장한 상감령의 황계광영웅과 모택동동지의 아들 모안영동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유명무명의 지원군용사들이 조선전선에서 자기의 고귀한 청춘과 생명을 서슴없이 바쳤다고 하시면서 60년의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조선의 산과 들에 붉은 피를 뿌리며 영웅하게 싸운 그들의 영웅적위훈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잊지 않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피로써 맺어졌으며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 고귀한 재부로 물려주신 불패의 조종천선의 바통을 후대들에게 잘 넘겨주고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두 나라 공동의 력사적책임이며 중대한 사명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종 두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들의 변함없는 의지와 념원에 따라 전통적인 조종친선은 영구불멸할것이며 대를 이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의 온갖 풍파와 시련을 이겨낸 조종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키시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하시면서 전체 군대와 인민이 전통적인 조종친선을 귀중히 여기고 중국인민과 함께 조종친선협조관계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활력있게 강화발전시켜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 당중앙위원회 비서들과 당중앙군사위원회 성원들을 인솔하고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련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시였다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 당 중앙 위원회 비서들과 당 중앙 군사 위원회 성원들을 인솔하고 회창군에 있는 전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부를 방문하시였다



#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 기념좌담회

## 베 이 징 에 서 진 행

【베이징 10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에 즈음하여 10월 25일 베이징의 인민대회장에서 기념좌담회가 진행되었다.

좌담회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호쩌닝둥지를 비롯한 중국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베이징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영웅대표들, 중국인민해방군 베이징주둔부대와 지방에 있는 조선전선참전자들, 로전사대표들, 희생된 중국인민지원군 지휘관들의 부인들, 지원군영웅렬사가 추대된 영웅, 관계부서 책임자, 베이징시의 각계 대표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서재후동지가 좌담회를 사회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습근평동지가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를 대표하여 연설하였다.

그는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을 성대히 기념하는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위대한 애국주의정신과 혁명적영웅주의정신을 적극 따라배우고 발양시켜야 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위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

평화를 사랑하는것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이다.

침략자들이 일으킨 전쟁이 새 중국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던 위급한 시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모택동동지는 결연히 항미원조보가위국의 력사적인 결정을 채택하였다.

영웅적인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은 평화수호, 침략반대의

정의의 가치를 높이 들고 조선의 군대와 인민과 함께 한전호 속에서 생사를 판가리하는 혈전을 벌려 항미원조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고 인류의 진보를 이룩하는 데서 거둔 커다란 승리이다.

그는 붉은 피로 조선의 대지에 진달래를 활짝 피운 력사들의 영웅적위훈을 력사에 길이 남을것이라고 하면서 60년간 중국인민은 중조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이 피로써 맺은 위대한 전투적친선 그리고 조선정부와 인민이 지원군을 보살펴준 사향배우고 적극 지원해준 각종적인 화폭들을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항미원조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후 첫 대규모적이며 국제적인 국부전쟁으로서 교전쌍방의 무장장비수준차이가 현저하였으나 중국인민지원군은 조선인민군과 어깨를 견고히 하는 승리를 부단히 거두었다. 간고하고도 맹활한 전투끝에 중국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은 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적들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조인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고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항미원조전쟁은 평화를 수호하고 침략을 반대하는 정의의 전쟁이었다.

중국인민지원군의 힘의 원천과 승리의 요인은 위대한 항미원조전쟁의 정당성에 있다.

60년전 중국인민이 참수없는 정황에서 분연히 지원군을 파견하여 항미원조전쟁에 참가한것은 전적으로 평화를 수호하고 침략을 반대하는 정의의 조치였다.

하기에 지원군전사들은 싸우면 싸우수록 더욱 용감해졌으며 왕성한 투지와 높은 사기를 가지게 세상을 놀래우면서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전쟁기적을 부단히 창조해수 있었다.

이 정의의 전쟁은 전세계 평화애호나라와 인민들의 지지와 원조를 받았다.

모든 사실은 조국의 영예, 독립과 안전을 위해 일떠선 싸우는 각성된 민족은 필승불패 이라는것을 증명해주었다.

위대한 항미원조전쟁은 새 중국의 위신과 군대의 권위를 높여주고 약자가 강자를 타승한 전례를 창조하였다.

항미원조전쟁의 승리는 적의 쌍방의 격차점이 현저한 조건에서 마련된것이다.

미군은 핵무기를 제외한 일체 신식무기들을 다 동원하였을뿐 아니라 특군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병력을 전쟁에 투입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은 련세한 장기로 결사전을 벌였다. 그들은 병하 30°C이하의 혹한속에서 눈덮인 협산준영을 종종무진하면서 목숨바쳐 싸웠다. 수많은 용사들이 중상을 당하고도 피바다우에서 다시 일어나 적을 향해 돌진하였으며 심지어 자기의 몸으로 적의 화구를 막았다. 전투과정에 실사 한사관과 한자루의 총이 남는다고 해도 진지를 끝까지 사수하였으나 적들과 마지막까지 혈전을 벌였다. 적들의 《공중요새》에 그들은 맹공격과 삼엄한 방위에 불구하여 폭을 수도 없고 파괴할수도 없는 강철의 수송로를 구축하였다. 《공중요새》의 영웅한 전투에서 그들은 세계공중전력상위 7명 형제들이 저지마다 입대하는 강동적인 장병들이 펼쳐했다. 수천수만의 철도노동자와 자동차운전자들, 로동자들이 련이어 지원전선에 나가 전사수송과 후방사업을 맡아하고 의료인들은 의료봉사대를 무어 중조 두 나라 군인들을 치료하였으며 전국적범위에서 지원군물품과 무기한납품, 의정헌혈사기족우대운동이 벌어져 전선군인들의 사기를 크게 북돋아주었다.

항미원조전쟁은 눈물겹고 감격적인 개개가 울려 퍼지게 하였을뿐아니라 위대한 항미원조전쟁을 낳았다.

그것은 조국과 인민의 리의를 보다 귀중히 여기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우는 애국주의정신이며 용감하고 완강하며 목숨도 아낌없이 바치는 혁명적영웅주의정신이며 근면과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종 사기를 북돋아준 혁명적투쟁의정신이다. 그것은 또한 조국과 인민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혁명정신이며 인류의 평화와 정의의 위업을 위하여 분투하는 국제주의정신이다.

위대한 항미원조전쟁은 중국공산당과 군대의 숭고하고도 생동한 화폭으로서 중화민족의 전통적덕과 품격을 집중적으로 보여준것으로, 애국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민족정신의 구체적 구현으로 된다.

이런 정서는 영원히 중국인민의 고귀한 재부이다.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전선에서 이룩한 모든 위대한 승리는 전국의 각 민족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때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당시 전국의 광범한 인민은 당과 정부의 호소에 호응하여 줄기찬 항미원조운동을 벌였으며 전선과 전장을 지원하였다. 전국각지에서 부모들이 자식을 바래주고 인애가 남편을 바래주며 형제들이 저지마다 입대하는 감동적인 장면들이 펼쳐했다. 수천수만의 철도노동자와 자동차운전자들, 로동자들이 련이어 지원전선에 나가 전사수송과 후방사업을 맡아하고 의료인들은 의료봉사대를 무어 중조 두 나라 군인들을 치료하였으며 전국적범위에서 지원군물품과 무기한납품, 의정헌혈사기족우대운동이 벌어져 전선군인들의 사기를 크게 북돋아주었다.

전국의 각 민족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정신이 있었기에 지원군장병들은 원수들에 대한 적개심을 안고 전쟁의 모든 곤난을 이겨내며 강대한 적들과 싸워이겨 마침내 항미원조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항미원조전쟁과정에 평화와 정의의 위해 싸운 지원군 전체 장병들은 전쟁에서 전쟁을 배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항미원조전쟁의 표면이 벗은지 50여년이 되었지만 그때의 가렬한 전쟁이 인민들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 기억은 세월이 변한다 해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것이다.

오늘 세계정세의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에 대처하여 보다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적환경과 화목하고 친선적인 주변환경, 평화호혜의 경제무역환경, 서로 믿고 협조하는 안전환경을 마련하는것은 중국의 평화적발전을 실현하는 필연적공무이며 항구적이고 평화롭고 공동으로 번영하는 조화로운 세계건설을 다그치는데서도 반드시 거머잡아야 할 것이다.

조선반도는 중국의 산과 물과 잇닿아있으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것은 세계평화와 안정의 전반적정세와 관계된다.

이 문제에서의 중국의 기본립장과 정책적주장은 일관하다.

그는 끝으로 전제 중국인민이 호쩌닝둥지를 총서기로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령을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노력할것을 당부하였다.

이 승리는 중화민족이 폭압에 굴복하지 않고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확고한 결심과 굳센 힘을 가지고있으며 압박받는 전세계인민들의 민족적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한 정의의 위업을 크게 고무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진보위업을 추진시켰다는것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는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을 기념하는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서기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과 당창건 65돐, 《은. 7》결성 84돐에 즈음하여 영국에서는 집회와 도서, 사진전시회, 로씨야에서는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시회, 리비아에서는 영화감상회가 8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장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당건설령도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그리고 선군건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인민의 창조적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행사장에서는 영국주재사상연구소, 로씨야작가동맹, 대외친선 및 협조발전협회, 포크노시행행부, 트리니네드 토바고 포트 오브 스페인시청, 트리니네드 토바고 조선친선 및 연대협회, 리비아 무르즈코드와 쿠르라도의 학회들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에서는 《개신문》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행사장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로씨야대외친선 및 협조발전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김정일동지께서 높이 추대되신것을 높이 모시고 강대국을 거머이 밀며세우려는 조선인민의 결의의 신념과 의지를 만천하에 표시하였다.

적대세력들이 조선인민의 불굴의 투쟁을 가로막아보려고 책동하였지만 조선에서는 진보적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는 경속의 축복, 승리의 축복이 터져올랐다.

이 경이적인 사변들은 조선혁명의 만년초석을 더욱 굳건히 다져오신 김정일동지의

철회한 예지와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의 결과이다.

로씨야 포크노시 부시장은 뜻깊은 기념일들에 즈음하여 조선의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시회를 진행하는것은 로씨야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언급하고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경제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열렬히 축하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네발에서는 토론회와 도서, 사진전시회, 에집트에서는 좌담회, 인디아에서는 강연회, 도서전시회, 영화감상회, 로씨야에서는 청소년래디오시범경기가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장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그리고 조선로동당이 걸어나온 승리와 영광의 65년을 소개하는 출판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행사장에서는 네발로동자노동자, 조선의 통일을 위한 네발 발파르스트레드선위원회, 네발조선친선협회, 에집트민족민주당, 인디아 민족적보급운동위원회, 비정부기구 스트라마르삼달렐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행사장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들인 《강성대국의 불로라》, 《평양의 밤》이 상영되었다.

네발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올리는 축전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서기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과 당창건 65돐, 《은. 7》결성 84돐에 즈음하여 영국에서는 집회와 도서, 사진전시회, 로씨야에서는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시회, 리비아에서는 영화감상회가 8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장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당건설령도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그리고 선군건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인민의 창조적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행사장에서는 영국주재사상연구소, 로씨야작가동맹, 대외친선 및 협조발전협회, 포크노시행행부, 트리니네드 토바고 포트 오브 스페인시청, 트리니네드 토바고 조선친선 및 연대협회, 리비아 무르즈코드와 쿠르라도의 학회들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에서는 《개신문》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행사장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로씨야대외친선 및 협조발전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김정일동지께서 높이 추대되신것을 높이 모시고 강대국을 거머이 밀며세우려는 조선인민의 결의의 신념과 의지를 만천하에 표시하였다.

적대세력들이 조선인민의 불굴의 투쟁을 가로막아보려고 책동하였지만 조선에서는 진보적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는 경속의 축복, 승리의 축복이 터져올랐다.

이 경이적인 사변들은 조선혁명의 만년초석을 더욱 굳건히 다져오신 김정일동지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대표단과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 회담 진행

【평양 10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대표단과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의 회담이 26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영호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 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경각동지와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정명도, 리병철 조선인민군 대장들, 김명환 상장을 비롯한 조선인민군 장병, 군관들이, 상대측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상장 팍백웅동지와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장 마요청, 총정치국 부부주임 상장 동세영, 총장비부 부부장 상장 리안동,

총참모부 부부장 장장 진은하, 심양군구 부정치위원 장 장영용, 제남군구 부사령관 장 장공조,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 부주임 소장 조옥민, 국방부 의사관공실 주임 소장 전리화, 총정치국

선전부 부장 소장 주도를 비롯한 장병, 군관들, 류홍제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손연봉 대사관 국방무관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조중 두 나라 군대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대외에서와 공동의 관심사로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깊이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담은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 만경대 방문

【평양 10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상장 팍백웅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이 26일 전용기로 귀국하였다.

중양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상장 팍백웅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이 26일 전용기로 귀국하였다.

【평양 10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상장 팍백웅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이 26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이 력사의 집에 들이여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들어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팍백웅동지는 감상록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원히 인민들의 마음속에 계신다는 글을 남겼다.

【평양 10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상장 팍백웅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이 26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이 력사의 집에 들이여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들어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팍백웅동지는 감상록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원히 인민들의 마음속에 계신다는 글을 남겼다.

#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 귀국

【평양 10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표단과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의 회담이 26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평양 10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상장 팍백웅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이 26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평양 10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상장 팍백웅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이 26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평양 10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상장 팍백웅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이 26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